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11. Vol. 306

기획특집_2020년은 저물어가지만 양양군은 새롭게 떠오른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

역동하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희망복지
소득배가 농산어촌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
몇번의 태풍으로 인한 역대급 피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 된 양양군.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양양군,
행복한 양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양군

양양소식

Vol. 306

CONTENTS

희망양양

04 **기획특집_** 2020년은 저물어가지만 양양군은 새롭게 떠오른다

08 **이슈앤피플_** 동해생명자원센터 김두호 센터장

11 **마을가는 길_** 양양읍 송암리

14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 식해(食醢) 음식문화

의기양양

16 YANGYANG NEWS

19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풍요로운 가을걷이(秋收)

20 **의정소식_**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사림사지에 얽힌 두 번째 설화

열린양양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

COVER STORY

곶감말리기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양양소식 · 306호

| 발행일 2020년 11월 2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2020년은 저물어가지만 양양군은 새롭게 떠오른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20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와 불안의 시기였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수난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양군은 2020년이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시기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이라는 군정비전으로 시작한 민선 7기의 여정이 반환점을 맞이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7년째 이어지는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 변화를 이루어낸 해였기 때문이다.

이번 11월에는 양양군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이룬 변화와 기대효과, 향후 행보를 짚어본다.

남대천 르네상스로 양양의 풍경이 바뀌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이어진 공약사업으로, 약 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양 지역의 환경과 문화 관광의 총집결체인 남대천을 생활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7년째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역점 시책이다.

생태환경 복원, 생태관광지 조성,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 개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7개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웰컴센터 건립, 전통시장 다목적광장과 송이연어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 등은 이미 완료되어 양양의 문화 · 축제 전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단계인 하천 정비사업과 남대천 순환도로인 군도 4호선 확장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우리 군만의 독창적인 관광명소 탄생을 예고한다.

지난 10월 말 재착공에 들어간 어화원 조성 사업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어화원(漁花園)은 국내 대표적인 연어 소상하천인 만큼 연어가 회귀하는 공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 일원에 조형물과 산책로를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어 공공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한편 어화원 주변으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행자 통로박스인 연어나들목이 지난 해 준공되었으며, 이벤트 광장, 잔디광장, 주차장 등도 최근 완공하였다.

2021년까지 추진되는 양양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개선사업은 9.7km에 이르는 남대천 제방 사면 구간을 대상으로 상징공간, 경관형 녹지공간, 자연형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이미지 상징 공간은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으로써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한 공간이다. 어화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 경관 조명 설치 등 양양의 시그니처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경관형 녹지공간은 관목 및 계절초화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구역별 시작패턴으로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공간 연출에 중점을 둔다. 기존의 체육공원, 송이조각공원, 수

상레포츠체험센터 등 공원 및 시설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송이조각공원은 기존의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송암리 540-1번지 일원 22,000㎡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올해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추진 된 송이조각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공사를 시작해 지난 10월에 마무리 되었으며, 주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공원 이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반 골프와는 달리 나무로 제작된 골프채와 공을 잔디 위 홀에 넣는 파크골프는 작은 부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스포츠로,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양양 군민의 스포츠 여가 문화에도 새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자연형 녹지공간은 여러 수종의 초화를 파종하고, 천혜의 남대천과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누구나 휴게할 수 있는 쉼터와 포토존 기능을 하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개선 사업은 쾌적한 하천 경관과 양양군의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같은 남대천의 변화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남대천 하구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카누, 카약, 전통뗏목, 오리배, 수상자전거 등을 즐기며 하천의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양군민이 함께 창조하는 남대천의 미래

우리 군은 현재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하천 유역의 기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원화 개념의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사업의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천과 도시공간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화사업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수상레포츠체험센터와 어화원, 여울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원화 개념으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할 계획이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 등으로 악순환을 겪던 남대천을 지역 문화와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양양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 남대천의 가치를 레벨 업 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0월 중 양양군에 거주 또는 생활권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주민 중 역량 있는 지역일꾼 발굴, 네트워크 기반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주민참여단은 무보수 · 명예직으로 운영되며 역량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대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

된 이번 공모전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즐길거리나 환경조성 방안 등 적은 예산으로도 남대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전에 충실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 남대천은 하천을 따라 산책 또는 운동을 즐기거나 여울을 거니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힐링 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군은 향후 남대천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구축하여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도시로써의 매력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도시 경관이 달라지고, 삶의 질은 높아지다

우리 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도시기반 확충을 손꼽을 수 있다.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민원이었던 종합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더불어 전통시장 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 경관이 깨끗해지고 정돈되어 가고 있다.

올해 6월에는 2018년 양양교~양양도서관에 이어 군청사거리~남문3리 마을회관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됐다. 전통시장과 인접한 남문리 중심가로인 이 구간은 전통 시장 및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어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곳이었다. 전선 지중화와 연계하여 보도 정비, 가로등 교체, 신호등 이설, 버스승차장 설치 등이 별도의 사업비로 진행되어 쾌적함과 편의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원활한 교통 소통도 가능해졌다.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160면 규모의 주차타워 역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 문제를 껴안고 있던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지난 10월 8일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양양읍 연창리에 위치한 기존 터미널에 대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된 터미널 이전 사업은 터미널 신축 및 도로 개설을 위한 국유지 매매 계약 체결, 실시 계획 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새롭게 이전하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대지면적 8,991㎡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1,812.8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편리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요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설계 방향을 잡았다. 이전되는 터미널 부지 인근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계획이고, 56년 만에 양양경찰서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도심 확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군은 신규 인프라 확충과 도시 재생 사업 등 굵직한 현안 사업으로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산불방지지원센터 준공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현황과 군민의 니즈(needs)가 반영된 사업과 정책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할 것이다.

〈**글 · 사진** : 편집부〉

가을에 돌아오는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온 동해생명자원센터 김두호 센터장

10월의 들녘이 누렇게 변하면 수확의 풍요로움이 넘실대는 듯합니다. 벼가 익고 과일이 익고 국화가 피는 계절에 넉넉해지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양양 남대천 물길을 거슬러 힘차게 차고 오르는 연어도 이맘때 귀환하고 있어 반가움이 큽니다. 양양으로 회귀하는 연어처럼, 지난해 동해생명자원센터(구, 내수면생명자원센터) 센터장으로 돌아온 김두호 센터장도 고향에 돌아와 연어를 맞이하는 이 가을이 설렙니다.

10월~11월, 연어 돌아오다

이맘때 남대천에 나가보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볼 수 있다.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어의 회귀를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해 동해생명자원센터(이하 센터) 앞 남대천에는 그물망이 쳐져 있고, 연어가 센터의 수조로 올라오도록 물길을 열어놓았다.

10월 중순쯤부터 매일 남대천에 큼직한 연어 서너 마리가 물살을 가르는 것을 보며 김두호 센터장도 이상우 연구원도 반갑기만 하다. 이맘때쯤이면 매일 연어가 돌아오는 것을 보느라 남대천의 수문장이 된 듯하다.

예년 같으면 연어가 돌아오는 이 기간에 연어 축제가 열려서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연어를 보고, 맛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물살을 가르며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의 모습이나 채란 작업 등을 수중카메라로 촬영해 온라인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동해생명자원센터로 명칭 바뀌다

그동안 '내수면생명자원센터'로 불리던 명칭이 올해부터 '동해생명자원센터'로 바뀌면서 동해안의 생명자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 등으로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지난해 취임한 김두호 센터장은 양양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센터장을 맡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늘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죠.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3년여 만에 고향으로 오는 것이니까요, 저도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고향에 돌아오니 반갑고 좋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연어 축제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연어를 볼 수 있으니 힘차게 헤엄쳐 오는 연어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어도 좋겠습니다."

양양 남대천에는 매년 6, 7천 마리의 연어가 돌아오는데, 올해는 수온이나 기온이 낮지 않아서 냉수성 어종인 연어가 찾기에는 예년과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연어가 더 많이 돌아온다면 양양 남대천 맑고 푸른 물에 넘실대

동해생명자원센터 김두호 센터장(오른쪽)

연어가 돌아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연어를 활용한 식품 등을 보면서 연어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연어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는 연어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연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도 발달해 어민 소득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연어, 좀 더 친숙하게

11월 한 달간 동해생명자원센터 내 연어포획시설 VR 체험과 연어생태체험관에서 연어를 포획하고 채란하는 작업등을 온라인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어를 활용한 바이오 제품을 소개하고, 연어송 댄스 체험을 통한 생태체험행사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즐기는 연어 축제, 온라인 연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김두호 센터장은 연어의 가치를 알릴 수 있어 즐겁고 반갑다고 한다.

양양 남대천 맑은 물로 힘차게 돌아오는 연어처럼 고향에 돌아와 연어 지킴이를 하는 김두호 센터장은 새롭게 진행하는 온라인 연어체험에 대한 기대를 보이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연어에 대한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보여준다면 연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어 회귀율을 높이는 것이 센터의 가장 큰 과제이다.
최근 강릉 연곡천과 고성 북천, 명파천, 그리고 양양 남대천 등 동해안 4개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2018년에 1만 3천 마리, 2019년에는 1만 477마리로 회귀율은 0.25%에 불과하다.
봄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북태평양까지 약 2만 km를 돌아 3년 만에 돌아오는데 양양군에서 연어산란장을 설치해 인공부화를 통해 관리한다면 더 많은 연어가 돌아오고, 연어를 자원화해 지역의 특징 있는 산업으로 추진해 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인공부화로 생산량이 많아 산업화가 되고 있는데, 양양에서도 연어를 활용한 체험 관광, 바이오산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김두호 센터장은 연어 회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등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양양군 서면 용천리 인근 남대천 일원에 연어생태계 보호 및 연어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58,000㎡ 규모의 연어 자연산란장이 조성된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및 친환경 관광자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나오는 연어 부산물은 도내 바이오 산업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해 식품개발, 의약품 개발 등에 쓰인다.
맑은 물이 흐르는 양양 남대천에 생명력이 넘실대고 있다. 김두호 센터장도 일 년 중 가장 설레고 분주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글 · 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읍 송암리

동해북부선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
베풀고 나누면서 커져가는 이웃 간의 정(情)
화합하고 소통하며 새 길을 여는 주민들

양양읍 송암리는 한때 '길'잃은 마을이었다. 70년 전에는 철길을 잃었고, 수년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길을 잃었다.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져 마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던 시절의 이야기다. 길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여기보다 더 나은 어딘가로, 더 멀리 뻗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길을 만든다. 지금 송암리 사람들은 같은 길 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여기보다 나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이다.

옛길이 마을의 역사가 되다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 위에 소나무와 바위가 있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송암리'는 기차와 인연이 깊은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산을 깎아 철로를 놓을 때, 소나무와 바위는 그대로 남겨 둔 것이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양양과 원산 사이에 동해북부선을 개통하고 양양광업소에서 생산한 철광석을 기차로 실어 날랐다. 양양역은 동해북부선의 끝이자 시작이었고, 그 터가 아직 송암리에 드문드문 남아있다.

양양읍 송암리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300미터쯤 가다 보면 울창한 숲길이 나오는데, 수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도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다. 송암리에서 나고 자란 김재호 노인회장(80세)은 그것이 바로 동해북부선의 플랫폼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 조용하고 평범한 시골길이 한때는 기차가 빈번히 오가는 철로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제가 광업소에서 양양역 쪽으로 쉽게 철광석을 옮기기 위해 만든 케이블카 하차장의 흔적과 역사(驛舍)가 있던 자리도 어렴풋하게 남아 동해북부선의 옛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승객들이 모여 있던 플랫폼의 왁자함, 역 주위로 들어선 상가들로 번화했던 거리, 땀을 흘리며 철광석을 옮기던 인부들의 고단한 뒷모습 등 생의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양양역의 풍경이 세월의 뒤안길로 아스라이 사라졌다.

동해북부선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운행을 정지했고, 1967년에 전 구간이 폐지되었다. 지금은 이곳에 정말 기차가 다니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김재호 노인회장의 기억에는 그때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는 기차가 방향 전환을 할 때 사람들이 열차 머리를 직접 돌리던 풍경을 설명하면서, 기차를 보며 느꼈던 호기심과 설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아마도 그 시절 기차는 마을 아이들의 설렘과 동경을 함께 실어 날랐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았던 동해북부선은 최근 철도 복원사업이 언급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잊혔던 양양역이 다시 송암리에 들어선다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 않겠냐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다.

공감과 소통으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다

송암리는 현재 133가구 37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3가구 77명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 온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농사'밖에 모르는 농부로 살아왔다. 자기 일만 잘 챙기면 먹고사는 일에 큰 지장이 없었으니, 함께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는 서툴렀다. 주민들의 마음은 제각각 흩어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2018년부터 이장을 맡아온 함준기 이장은 취임 당시 '주민 간의 단합'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그는 객지에서 대학을 나와 34년 동안 포스코에서 근무했다. 은퇴 후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마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잦고 편 가르기도 심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주민 간의 단합이 시급했습니다."

함준기 이장은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늦은 밤까지 지원 사업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했다. 지난 해 작목별 안전장비 실천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의 가가호호에 농기계와 장비들을 공급했고, 2019 기업형 새 농촌 기초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 사업을 꾀하는 등 마을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주민들이 마을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마을 경관을 정비하고,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올해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마을의 연장자인 채복성 前노인회장(83세)은 이러한 변화가 반갑다.

"옛날에는 우리 부락이 단합도 안 되고 자기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마을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전보다 훨씬 잘 사는 마을이 된 것 같아 좋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잘해요. 마을 일에 협조를 잘하고 있죠."

이심전심 마음을 나누며 결속력을 다지다

송암리는 해마다 서낭제를 지내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도 빠짐없이 진행하는 등 마을의 오래된 전통을 지키며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주민을 마을 일에 적극 가담시킨다.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함준기 이장. 그 해법은 주민들에게 달린 것이기에 그는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고민한다. 7년 전 송암리로 귀촌한 최명미 부녀회장 역시 이장을 도와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일에 열심이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폐품을 수집해서 마을 기금을 마련하고, 삼복더위 때마다 삼계탕을 끓여서 마을 주민들끼리 나눠 먹기도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설날이면 부녀회에서 떡국 떡을 돌리기도 하는데, 10년 동안 부녀회를 이끌었던 김철순 前부녀회장(74세)은 마을 기금을

모아 어르신들의 반지도 맞춰드리고, 인근 부대 위문을 가는 등의 인심을 나눴던 옛 시절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렇듯 어느 한 명의 노력이 아닌 마을 주민 일동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덕분에 송암리는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송암리는 양양군에서 추진 중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수혜마을로 떠올랐다. 이곳에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하여 양양경찰서가 곧 들어설 예정이고, 새롭게 단장한 남대천 송이조각공원에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남대천 정화 활동을 펼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카페 운영을 구상하는 등 양양 남대천의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자 한다. 송암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의 출발선에 있다.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송암리 주민들이 함께 걷는 그 길이 언제나 '꽃길'이길 희망한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식해 음식문화

겨울밥상 챙겨주던 식해 그립지 않으세요?

젓갈음식문화에 속하는 '식해'는 적어도
1300여 년 전부터 먹어왔던 발효음식이다.
우리 음식문화 역사에서 술(酒) 다음으로
오래 된 음식으로, 선뜻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토착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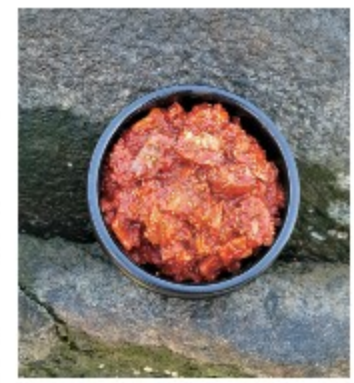
지금은 먹어 볼 수 없는 가오리식해, 사슴식해도 있었는데, 식해(食醢)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선이나 고기를 썩힌 듯이, 아닌 듯이 곰삭혀 먹는 발효음식의 정점에 있는 '손끝의 음식'이다. 당시 문무왕이 수레에 실려 보냈던 식해 중에 양양의 '햇대기 식해'나 '새치 식해'도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양양에도 여섯 가지 '육진미'(六珍味)의 식해음식문화가 있었다.

햇대기(횟대)식해, 도루묵식해, 새치식해도 있었는데…

지금이야 귀한 줄 모르는 음식이지만, 신라시대 때의 젓갈과 식해는 문무왕이 장가를 들 때, 왕비가 될 신부 집으로 말린 생선젓갈과 지금처럼 조밥이나 쌀밥에 생선을 절여 삭힌 식해(食醢)를 예물의 한 품목으로 수레에 실어 보낼 만큼 귀한 음식이었다.

포항이나 영덕 사람들은 그물에 잡힌 '횟대기'를 놓고 제법 큼지막한 것은 '홍치'라 하고 잘잘한 것을 '횟대기'라고 하지만, 양양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횟대기'라고 한다.'횟대기'는 열갱이처럼 불그레한 색깔에 햇대처럼 길쭉하게 뻗은 모양을 하였다고 이름 붙여진 잡어(雜魚)이다.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어디서나 흔하게 잡히는데, 여느 생선들과 달리 살집이 부드럽지 않고 제법 단단해서, 예전부터 양양에서는 매운탕, 찌개, 횟감용 보다는 식해(食醢) 재료로 즐겨 먹던 잡어(雜魚)이다. 곰삭히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꼬득꼬득 하게 씹히는 '횟대기 식해' 말고도 양양의 식해(食醢)음식에는 가자미식해, 새치식해, 명태식해, 도루묵 식해, 양미리 식해가 있었다. 사금 사금하게 삭혀서 양양 사람들의 긴긴 겨울 밥상을 챙겨 주던 식해음식들이다. 이 가운데 기껏해야 종종 맛 볼 수 있는 횟대기 식해, 가자미식해 말고는 양양의 겨울 밥상에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된 식해도 있는데, 한때 바닷가 쪽 사람들이 꽤나 즐겨 먹었던 '새치 식해'이다. '새치'는 '임연수'를 뜻하는 양양의 토속어로 팔뚝만 하게 큰 것을 '밤꽁이 새치'라고 하고, 작은 새끼는 '가리가리'하게 작다고 하여 '가리쟁이'라고 하였는데, '새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새치 식해'도 양양에서 더 이상 맛 볼 수 없게 된 식해이다. '횟대기 식해'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살맛이라서 삭힌 '새치 식해'는 한 토막 채로 손으로 찢어 먹었던 양양만의 각별한 식해였다.



양양 고전 음식문화 명맥의 아쉬움

씹을수록 짠득짠득하게 곰삭은 고기 맛에 감칠맛이 돌던 명태 식해, 도루묵 식해 또한 양양 음식문화를 대표하던 식해였다. 명태가 사라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장을 하듯 담궈 먹었던 식해였다. '가자미식해' 만큼이나 즐겨 먹었는데, 특히 소금에 절여 토막을 낸 명태를 양념에 버무려 김장 배추 속에 박아 두고 삭혀 먹었던 '명태김치'는 비린내도 없이 시원한 맛으로 인기가 참 많았던 양양의 '식해김치'였다. '명태김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삭힌 명태 살을 손으로 찢어서 김장김치에 싸서 먹는 것이었다. 또한 삭혀두면 살강살강하게 씹히는 맛이 좋은 '도루묵' 역시 양양에서는 가장 평상적인 식해 재료로 많이 사용하였다. 어종의 육질이나 특성에 따라 식해 맛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1300년 전 때처럼, 생선을 삭히거나 절여 먹어 왔던 식해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던 양양이었다. 고유하고 각별했던 양양의 식해음식들이 점차사라지거나 겨우 양양의 고전 음식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다.

염전(鹽田)이 많아 생선을 소금으로 절여 먹는 '젓갈음식'이 발달한 서해안 지역과 달리, 바다가 있으면서도 소금이 귀해 쌀이나 조, 기장 같은 곡물과 생선을 섞어 삭혀 먹는 '식해음식'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양양의 식해음식 역시, 그 오랜 세월을 동안 긴긴 겨울 밥상에 올라 뽀얀 쌀밥 맛을 더해 주던 기발한 음식이였음은 틀림이 없는 별미이다.

〈**글 · 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양양뉴스
YANGYANG NEWS

양양군 제27대 김호열 부군수 취임

양양군 제27대 김호열 부군수가 지난 10월 30일 취임했다.

김호열 신임 부군수는 양양 출신으로 양양군에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오색삭도추진단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역임하고,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발전과장을 거쳐 양양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김 부군수는 양양공항 개항과 오색케이블카 사업 최종 승인 등 양양군 현안 사업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기획력과 실무를 겸비한 탁월한 능력으로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군수는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진하 군수님을 잘 보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 첫 삽

군은 그동안 터미널 신축 및 도로 개설을 위한 국유지 매매 계약 체결,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양양읍 연창리에 위치한 기존 터미널이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2017년부터 터미널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새롭게 이전하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대지면적 8,991㎡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1,812.89㎡ 규모로 건립되며, 이용의 편리성과 쾌적성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춘 복합문화공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이전되는 터미널 부지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계획이며, 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비해 양양읍 송암리~연창리 일원의 도로 10개 노선에 대하여 1개 노선 신설, 9개 노선의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을 완료하는 등 교통의 중심지이자 도심 확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분야 13개 공모사업 선정돼 국 · 도비 확보

양양군이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도전해 10월 현재 2020년 공모사업에서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120억 2백만원의 국 · 도비 및 민간투자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 신청에 들어간 사업 중에서 아직 선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국 ·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2020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20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021년 생활형 SOC복합화사업(가족센터,작은도서관),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제1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제1회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020년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2021년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실내정원조성사업,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이다.

강현면 중복리, 회룡리 2020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 마을 선정

2020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양양군 강현면 중복리와 회룡리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

강현면 중복리(대표 김극수)는 추진 3년차로, 마을주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다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마을주민 동아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을 하나의 정원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구역별로 수선화정원, 백합정원, 수국정원 등으로 가꾸어 "꽃길따라 중복리"에 맞는 예쁜 마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역시 3년차인 회룡리(대표 정의만) 또한, 마을에 풍부한 자원인 들꽃을 활용한 꽃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룡초등학교와 경로당 앞에 꽃차공방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심신안정과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 한다. 회룡리 꽃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도 하며, 향기로운 꽃차를 매개로 동해고속도로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단절된 마을을 하나로 만들어 "향기로운 회룡리"로 나아갈 계획이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양양군이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가장 큰 규모의 국가통계조사인 202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약 20%)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직업, 가구구분, 거주기간 등 표본(현장)조사 55개 항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44여명의 조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였으며, 담당공무원 3명을 포함한 47명 요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지침교육을 실시했다. 인터넷 및 전화조사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 간 진행됐으며,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본조사 기간인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지역 수해복구 본격 추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지난 9월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으로 1시간 동안 무려 12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영동북부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도로, 차량 침수 등으로 태풍피해를 겪었다.

특히 이재민 166세대 313명이 발생하고, 도로 63개소, 하천 47개소, 수리시설 36개소, 상수도 6개소, 임도 29개소, 산사태 33개소, 해양쓰레기 5,000톤, 주택 166동과 농경지 99.02ha, 농작물 239.35ha 등에 큰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월 15일에 양양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부터 각 사업별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경미한 사업은 연내, 기능복원사업은 내년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양군청 사이클팀 김청수, 오민재, 최우림 국가대표 발탁

양양군청 사이클팀이 '2020 트랙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박상택 감독이 이끄는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지난 10. 27일부터 2일간 경기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 대회에 김청수(23), 오민재(22), 최우림(19)이 출전해 1LAP(오민재 1위), 2LAP(김청수1위, 최우림 3위), 200M(김청수 1위), 독주경기(최우림 1위, 김청수 2위)로 국가대표로 뽑혔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총 92명의 선수가 출전해 양양군청 사이클팀 3명이 나란히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들은 각종 세계대회 및 내년 도쿄올림픽 최종 선발전에도 출전하게 된다.
양양군의 사이클 역사는 국내에 사이클 붐이 일기전인 1962년 양양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최초로 사이클 부가 창단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70년대 사이클 전성기를 맞아 맹활약하며 양양을 사이클 명문 고장으로 올려놨고, 실업팀인 양양군청 사이클팀 창단에도 초석이 됐다.

김청수

오민재

최우림

군도 5호선 마지막 구간 10월말 착공

군도5호선 마지막 구간인 손양면 상운~여운포간 1.79㎞ 확포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도5호선은 7번국도 낙산 사거리에서 손양면 여운포리까지 연결되는 총 12.2㎞구간으로 군은 낙산지구와 하조대 지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조성,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송전~여운포 간 8.5㎞ 도로개설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지역은 지난 2000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1단계 사업으로 2008년에 오산교 가설 및 도로 확장사업을 마무리했고, 2단계 사업으로 2012년에 수산~동호간, 3단계 사업으로 2020년에 동호~상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마치는 등 5.27㎞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이다.

걷는 길 20개 코스별 현황 정비

군은 걷는 길을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의 필수적인 관광요소라고 보고, 걷는 길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다양한 걷는 길이 개설되었으나, 길에 대한 총괄 자료 및 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까지 걷는 길(구룡령 옛길, 38선 숨길, 디모테오길, 해파랑길 등) 20개 코스를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담당 부서인 관광과 및 관리부서 직원, 참여 희망 직원 등이 직접 현장 점검 후 기본 현황, 시설 현황, 주변 관광정보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길에 대한 특징과 여행자 정보 등 현황을 정비하고 있다.
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는 군 관광자원 개발 ·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풍요로운 가을걷이(秋收)

가을에 여문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걷이.
풍요로운 황금들녘에는 모를 내고, 김을 매며 지켜 온
고된 농군들의 땀방울이 알알이 맺혀있습니다.
지금은 콤바인이 있어 추수가 조금은 수월해졌지만,
그 옛날의 가을걷이는 벼를 베는 일부터 탈곡, 갈무리까지
하나하나가 고단한 작업이었습니다.

벼 털기, 도리깨질, 검불 날리기 하던 벼 타작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등 27개 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안,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3건,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조례 제 · 개정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10월 12일 개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제철, 간사 박봉균)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오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중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13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섭, 간사 김택철)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으로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일부를 양양군이 대행하기 위한「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을 심의 · 의결하였다.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문」 및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문」 채택

10월 14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문」과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망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릉과 고성은 2개 역사가 신설되는 반면, 양양군은 역사 1개 신설에 그쳤으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북분단의 상징성이 높은 38선 역사를 신설해줄 것을 정부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하여 국도 7호선 8군단 앞이 침수피해로 통제되고,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기에 군민과 관광객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은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은 단순히 강릉~제진간 연결이 아니라 남북분단에 대한 상징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역사성과 남북분단의 아픔을 기반으로 한 38선 역사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므로 이번 건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원 간담회 개최

태풍 피해복구 관련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

10월 14일,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간담회를 열고 태풍 피해복구 관련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을 보고 받았다.

양양군 산림녹지과로부터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조기복구를 위한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산사태와 임도시설피해지의 조기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어서 양양군 해양수산과로부터 해양쓰레기 태풍재해복구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을 보고 받고, 해변에 적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 처리하여 해양관광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양양의 사림사지(沙林寺址)에 얽힌 두 번째 설화 (을사포락/乙巳浦落)

● 沙林寺의 廢寺를 記錄으로 본 推定

① 동국대학교 문명대교수가 단장이 되어 1985년~1986년 2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사림사(선림원)의 금당(金堂)과 조사당(祖師堂)이 함께 매몰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禪林院本尊佛像問題와 石毘盧遮那佛像의 硏究 25쪽]한 바 있으나,
② 이에 대해 고려사를 중심으로 사찰의 창폐증축(創廢增築) 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거를 발견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정영호 전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은 양양군지(702쪽) 불교 편「선림원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 대조를 이룬다.
… "고려일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된 후 다시 중창불사가 크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다만 옛 석탑이 서 있고 석등, 석조부도, 석비 등 옛 사찰의 유적유물이 있으므로 승려들이 개인적인 수행도량을 짓고 등촉을 밝혔을 것이 아닌가 한다. 현지에서 수습되는 조선시대의 기와, 자기, 토기 등 여러 파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 1491년부터 매월당 김시습이 출가하여 양양에 다년간 기거하면서 사림사를 방문하여 사림사 비문을 확인하고 왕우군(왕희지)의 글자를 모아 쓴 것이라 하였으니 그 당시는 폐사되기 전이라 보아지며,
⑤ 양주읍지(襄州邑誌, 1823년)와 양양 현산지(襄陽 峴山誌, 1911년) 사찰 편에 사림사는 부 서쪽 40리 서림의 남쪽에 있는데 지금은 폐하여졌다.
기묘년(1819년/1759년) 6월에 서림 사람이 바위 낭떠러지에서 쇠 사발과 대나무 하나를 얻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⑥ 1747년 양양부사 안경운(安慶運)이 홍각선사비의 잔편을 수습하여 부의 창고에 간직하였다는 기사[襄州邑誌 · 峴山誌의 古蹟조, 江原道誌의 碑版조]로 보아 1747년 이전에 당사가 폐사된 것이라 보아진다.
⑦ 1747년 이전 양양지방의 천재지변을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근간으로 검색한바 1605년(을사) 포락이 너무 혹심한 재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양지방에 을사포락과 같이 지형을 바뀐 포락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때 산사태로 폐사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 沙林寺의 廢寺 설화

옛날 어느 해 여름날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폭풍 속 어느 날 밤에 수많은 승려가 적정스레 요사채에서 합장 불공을 드리고 있었는데, 경내 뜰에 대호(大虎) 한 마리가 나타나 들뛰면서 들볶으므로, 수장 스님께서 염불을 멈추게 하고서는 "대호가 저렇게 날뛰니 무슨 변고일까? 이는 예사가 아니요, 누구를 데려가려고 저러는 것이 분명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중의를 모으니 스님들 모두가 입을 맞춘 듯 "수장 스님부터 차례로 한 분씩 밖으로 나가 봅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무릅쓰고 스님들은 수장 스님부터 차례로 모두 나갔으나 대호는 여전히 들뛰며 볶아댄다.
이상히 여겨 인원을 점검하니 한 분의 스님이 보이지 않아 찾아본즉 요사채 주방에서 저녁을 마친 설거지를 하는 스님이 있어 나오라 하였다.
주방 담당 스님은 손도 닦지 않은 채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마당으로 나오니 대호는 순간 그 스님을 덥석 물고 휙 장대 같이 퍼붓는 빗줄기 속을 날아가듯 어둠 속을 가르는데, 지진인가 벼락인가 '쾅 우르르 쾅 쾅' 어두운 밤 산을 쪼개듯 부수듯 뒤흔들 드니 높은 뒷산이 절개되어 삽시간에 절간을 덮쳐버렸다고 한다.

【영혈사 주지 홍선 제공】

이렇게 하여 사림사는 사라졌는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무나 참혹하다.

「양양(襄陽)은 부내(府內)의 백여 호의 대 소 인가가 재산과 가축이 일시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형제 온 가족이 물에 빠지거나 산사태에 압사하여 여염 거리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해변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쌓였다.」

「襄陽則府內百餘戶大小人家財畜, 一時漂沒, 渰死人物, 或父母子女, 或夫妻兄弟, 有全家淪溺者, 有沙汰 壓死者, 閭閻街路, 哭聲徹天, 濱海之間, 積斃相枕。」

【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 을사(1605) 7월 23일(을미) 기사】

이 설화에서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바 대호는 산이 무너지려는 천기(天機)를 알고 물고 간 스님을 살리려 한 것인가? 먹이로 한 것인가? 대호인가? 산신령인가? 신비스럽기만 설화가 전해진다.

사림사지(선림원지) 발굴현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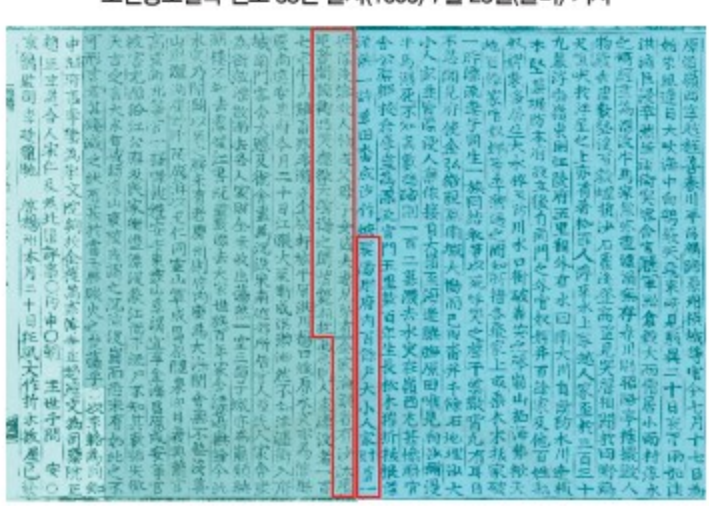
2015.7.27일~2016.11.20일 까지 (재)한빛문화재연구소의 정밀발굴조사 모습.

승탑 옥개석 발굴

한빛문화재단 정밀발굴조사팀이 발굴한 옥개석 사진 뒤에 보이는 보물 제447호인 승탑(부도)은 당초에는 현 위치에서 뒤편으로 약 500여m의 산 중턱에 도괴된 채 산재한 부재들을 수습하여 1965년 기단부만 복원해 놓았었다.

따라서 이 승탑의 상층부를 덮고 있었던 옥개석은 사림사의 폐사 동기가 된 산 사태당시 당초 승탑이 있었던 원 위치에서 약 800여m 까지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 을사(1605) 7월 23일(을미) 기사



襄陽則府內百餘戶大小人家財畜, 一時漂沒, 渰死人物, 或父母子女, 或夫妻兄弟, 有全家淪溺者, 有沙汰壓死者, 閭閻街路, 哭聲徹天, 濱海之間, 積斃相枕。

이달의 책이야기

나의 하루는 4시30분에 시작된다

김유진 지음 | 토네이도(2020. 10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는 꿈을 이룬다!" 알람이 울리고 5초, 출근 전 2시간으로 만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매일 저녁,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적의 모닝 루틴

미국 2개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유진 변호사의 아침 사용법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향긋한 차를 한잔하는 여유로운 아침을 꿈꾸는가?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지만 '1분만 더 자고 싶다!'고 생각하다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책이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15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유튜버이자 수년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해온 김유진 변호사가 아침 시간의 힘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새벽 기상으로 얻은 시간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이 시간만큼은 약속, 업무 등 예상치 못한 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출근 전 2시간을 활용하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 책 속 한 구절 ◆

나는 새벽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생각해보면 하루 중 순전히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일에 주의력과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에는 갑자기 일정이 변동될 확률이 드물다. 뜬금없이 연락해서 함께 식사하자거나 추가 업무를 부탁하거나 잠깐 수다를 떨자는 사람도 없다. 주의를 빼앗을 흥미로운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새벽에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_38쪽, chapter 2: 내가 4시 30분에 일어나는 이유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도서

우리는 어린이 시민

채인선, 주니어김영사(2020. 10월)

시민이 되는 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사회를 함께 꾸리며 살아간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고 성별이나 인종, 경제력, 직업과도 상관이 없다. 모두가 이 사회, 이 세계를 이루는 시민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의 '어린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민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세금을 안 내고 투표권도 없는데, 정말 시민이 맞는 걸까? 《우리는 어린이 시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 모든 물음표를 커다란 느낌표로 바꿔 주기에 충분한 책이다.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루이즈 글릭 외 지음, 수오서재(2020. 9월)

"날개를 주웠다. 내 날개였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색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마음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손 대신 시를 건네는 것은 어떤가. 멕시코의 복화술사, 영국 선원의 선원장, 기원전 1세기의 랍비와 수피의 시인뿐 아니라 파블로 네루다와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신세대 시인들, 그리고 라다크 사원 벽에 시를 적은 무명씨. 고대와 중세와 현대의 시인들이 나와 타인에 대한 운율 깃든 성찰로 독자를 초대한다.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10/28 〈테슬라〉
11/01 〈자백〉
11/04 〈도굴〉
11/12 〈내가 죽던 날〉
11/19 〈안티고네〉
11/25 〈해피스트 시즌〉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대왕마트	0명	매장관리원, 캐셔	10:00~22:00 (협의)	시급 8,590원
주식회사 하나전기	1명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자)	09:00~18:00 (주5일)	연3,000만원이상
해강건설 주식회사	1명	굴삭기운전원 (경력자)	09:00~18:00 (주6일)	월300만원
	1명	토목시공기술자 (공무포함)	08:00~17: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우암종합건설(주)	1명	토목 현장소장 (경력 10년이상)	09:00~18:00 (주5일)	연3,600만원
현신소규모 요양시설	1명	구내식당 급식조리사	09:00~18:00 (토요격주)	월179만원이상
광운통신(주)	1명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참조은 주간보호센터	1명	요양보호사	08:30~17:30 (주5일)	월180만원
설악환경(주)	1명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원	08:00~17:00 (토요격주)	월185만원
	1명	사무보조원	8:00~17:00	월185만원
가까운 재가복지센터	1명	재가 요양보호사	1일 3시간	시급 11,000원

양양군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고시 (양양군 고시 제 2020-245호)

- 고시일자 : 2020. 10. 08.
- 불법 주 · 정차 금지구역 추가지정 고시 내역

· **양양읍** : 새한공업사 앞 ~양우아파트, 양양농협 ~ 태산3차아파트, 임천교 ~ 실내체육관, 양양교, 임천교 ~ 터미널, 양양도서관 ~ 양양교, 의회삼거리 ~ 터미널 앞, 양양교 ~ 양양대교, 양양초등학교 사거리 ~ 양양교회 삼거리, 고려당 ~ 양양농협하나로마트 구간, 새한공업사 앞 ~ 전통시장 주차타워 구간
· **강현면** : 우미린아파트 ~ 주공아파트
· **현남면** : 인구초등학교 ~ 동산카센터 앞
인구택지(인구리 643번지 일원)
· **손양면** : 양양국제공항 구내도로
· **서 면** : 한계령 정상 휴게소 ~ 오색터미널 구간
남설악 탐방 지원센터 ~ 오색터미널 구간

- 단속시행 : 2020년 11월 02일부터
- 단속방법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및 이동형 차량단속

정보꾸러미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드립니다.

ㅁ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ㅁ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ㅁ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전화상담 : 신용회복상담센터 (국번없이) 1600-5500
* 방문상담 : 강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릉시청 15층)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 설치 후 상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신청

ㅁ 인터넷, 스마트폰 : '위택스', '정부24'를 통하여 환급금 유무 확인 및 계좌 번호 입력, 지급 신청

ㅁ 전 화 : 아래 문의처로 전화, 본인 확인 후 환급 계좌 번호 고지 및 지급 신청

ㅁ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 670-2297)

※ 2020.10.31.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중 기존 환급 내역 등을 통해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그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군민안전보험 실시

ㅁ보험기간 : 2020. 10. 15 ~ 2021. 10. 14

ㅁ보험대상 : 양양군민

ㅁ보 험 료 : 19,953,490(일천구백구십오만삼천사백구십원)

ㅁ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상해,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사상자 상해, 익사사고 사망

※타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

ㅁ 향후계획 :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로 주민 수혜 만전

안전총괄 담당(☎2749)

1등 500만원의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누가 양양?
양양군
대청봉
blog.naver.com/likeyyang
#고맙다 양양
500만원?!
2020 양양군 UCC공모전
공모기간 : 2020. 7. 15.(수) ~ 11. 30.(월)
공모주제 : 양양 관광, 축제, 서핑, 먹거리 등 콘텐츠
공모분야 : 영상(UCC)분야 참가자격 : 전국민 누구나(개인, 팀별 참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문의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 033-670-2103

제1회 양양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20년 11월 2일(월)~11월30일(월)
출품자격 제한 없음

작품내용 양양지역 농-어촌 생활문화상, 산-바다 4계절 자연경관, 축제와 레포츠, 관광명승지-양양팔경(미 발표작)

작품규격 11"x14"인화 (최근 3년 내 촬영한 컬러 또는 흑백)

출 품 료 1인 4점 이내 2만원 (계좌송금)
농협 301-0266-6579-51 양양군청 ※송금확인 후 접수

접 수 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양양예총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
(지부장 : 010-6371-3459, 사무국장 : 010-5074-7256)

접수마감 2020년 11월 30일(월) 당일 소인 유효

시상내역
금상 1점 : 양양군수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 : 양양군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양양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협 양양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입선 50점 : (사)한국사협 양양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유의사항

- 입선이상 작품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원본파일 4000x2500픽셀 이상으로 수상자발표에 표시된 웹하드에 전송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입상, 입선을 취소함. 가작이상 수상자는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상금은 관내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양양군관내 3년 이내 촬영한 사진작품**으로서 인물위주의 사진은 추후 관광홍보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입상작으로 뽑지 않음.
- 디지털합성사진, 기 발표된 작품, 타 지역 작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선, 입상이 취소됨.
- 본 공모전에 출품한 낙선사진은 일괄 폐기되며 반송을 하지 않음.
- 입선 이상의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되며, 촬영 된 관련 인물에 대한 초상권은 출품자가 책임을 진다.

주최 양양군 주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 양양지부 후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양양지회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